

디지털 카메라 국내 시장 동향

관공서, 기업에 업무용으로 대량 납품 점차 대중화 추세, 높은 가격이 걸림돌

국내에 디지털카메라가 보급된 지 5년에 접어들고 있다. 올해 시장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지만, 10개가 넘는 수입 제품들이 밀려들면서 그야말로 혼전이다. 6월 이후 수입 제품들이 앞다투어 화소수 200만대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주)와 삼성항공(주)이 제품 개발, 생산, 수입을 하면서 국내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지만 아직 100만화소급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1995년에 최초로 국내에 도입된 디지털카메라가 IMF에 이은 경제난 등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시장에서 성장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98년 디지털카메라 보급대수가 2만대를 밑돌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는 2만 5천대에서 3만대 가량 판매될 것으로 잠정 예측한다.(블랙마켓 제외) 경기 회복에 따라 기대했던 수요 증가에 많이 미치지 못한 편이다.

100명 당 1명꼴로 디지털카메라가 보급된 일본에 비교도 안되는 수량이다. 일본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디지털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의 사진을 담은 전자앨범을 만드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심지어 근래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필기를 하지 않고 디지털카메라로 촬영을 해두거나, 주부들이 장을 보러 가기 전에 냉장고를 찍은 후 시장에 가서 액정화면을 보면서 냉장고에 비어 있는 물건을 구입할 정도로 대중화돼 있다고 한다.

현재 디지털카메라 세계 시장은 약 30억달러 정도, 이 중 우리 나라는 1%에도 못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는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일반 사용자보다 관공서, 기업체, 병원 등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량 구입하는 비율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주차 관리였으며,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갱신 때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일반인



▲ 많은 디지털카메라가 쏟아져 나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디지털 카메라 국내 시장 동향

들에게 용도가 널리 알려졌다. 근래에 필름카메라를 사용하던 일반인들이 디지털카메라 쪽으로 관심을 많이 돌리고 있으나 아직 고가라는 점과 출력이 불편하다는 점이 수요를 늘리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쟁은 자못 치열한 편이다. 직접 개발해서 수출까지 하고 있는 업체는 삼성전자(주)와 삼성항공(주)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한국코닥(주), 한국후지필름(주), 아주포커스(주), (주)신도시시스템, (주)아남인스트루먼트, 아그파코리아(주)에 이어서 소니인터내셔널코리아(주), 휴먼테크 등 수입판매업체들까지 가세해서 약 14개 제품들이 혼전을 벌이고 있다.

용산 판매상들에 의하면 소비자들의 구입 패턴이 바뀌고 있어 예전에는 귀에 익숙한 전통적인 광학 메이커의 제품(코닥, 후지, 니콘 등)을 많이 찾았지만 근래에는 기능성을 중시한 가전 회사의 제품 등(소니, 산요, 도시바 등)을 찾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카메라 시장 변화
작년 삼성 저가·코닥 고가 시장 주도, 올 6월부터 200만 화소급 출시로 반전

국내에 디지털카메라가 들어와 붐을 일으킨 것은 95년도

초반 경. 현대전자에서 일본 카시오 제품을, 한국코닥필름(주)에서 코닥의 디지털카메라를 들여오면서부터 선풍을 일으켰고, 이어 많은 업체들이 시장성이 있어 보이는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뛰어들었다. 필름이 필요없고 입력된 화상을 PC와 연결해서 편집할 뿐만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큰 매력이었다. 활성화가 기대되던 참에 IMF를 기점으로 시장이 얼어붙어 수요가 급격히 줄었고, 작년 11월 이후부터 천천히 붐이 일고 있다.

디지털카메라의 가격 인하도 한몫했다. 200만 화소대가 나온다는 기대 심리에, 제품 개발 기술이 발달돼 원가가 떨어지면서 일본에서 가격을 내렸다. 국내에서도 가격이 떨어져서, 150만 화소로 줄이 없는 기종의 경우 60만원에서 7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카메라 시장은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삼성항공(주)이 주도하는 35만 화소급이 퍼져 있었으나, 작년 하반기에 한국코닥(주)(美 코닥)이 100만 화소급을 선보이면서 드디어 국내에서도 화소수 경쟁이 시작됐다. 시장 주도권을 쥔 한국코닥(주)을 겨냥해서 삼성항공과 아그파코리아(주)(獨 아그파), 소니인터내셔널코리아(주)(日 소니), 한

국후지필름(주)(日 후지) 등이 85만 화소급을 계속 내놓았으나, 이미 100만 화소급이 나온 시장을 잡을 수는 없었다. 이에 한국후지필름(주), 아주포커스(주)(日 올림푸스), (주)아남인스트루먼트(日 니콘), (주)신도시시스템(日 리코)이 올 6월부터 200만 화소급을 출시하면서 화소수가 시장 선점의 중요한 요인으로 떠올랐다. 한국코닥(주)도 8월에 200만 화소급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현재 기존 업체들의 시장 선점 유지 노력과 비교적 새로 시장에 들어온 (주)신도시시스템, 소니인터내셔널코리아(주), 휴먼테크 등의 마케팅으로 치열하다.

각사는 올 하반기부터 200만 화소대에서 기능이 보강된 제품과 300만 화소대의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어서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니콘, 도시바, 니코, 올림푸스, 후지 디지털 카메라 총판을 하고 있는 디지털 프라자의 최준식 대리는 '국내 디지털카메라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고화소이면서도 가격이 다운돼 일반 사용자들이 자동카메라처럼 쓸 수 있는 저가형 제품을 대기업에서 많이 내놓아야 할 것' 이라고 강조한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항공(주)이 10월에 선보인 Digimax

디지털 카메라 국내 시장 동향

800k같은 제품이 많이 선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80만 화소면 충분한 데다, 실제 판매 가격이 28만원대로 저렴해서 대중화하기에 적당하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도 요구된다. 다른 나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는 기능성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가형도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 나라는 고화질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막상 구입하려면 높은 가격이 걸림돌이 돼 망설이게 된다.

현재 주 사용처는 업무용이지만, 해상도가 높아지고 가격이 낮아지면서 디지털 동우회 등을 중심으로 일반 수요층도 점차 확대돼가는 추세이다. 업계에서는 기술 발달로 화소수

가 올라가고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2002년 경에는 리더층에 보급되고, 2005년 경부터는 점차 일반인들에게도 확산될 것이라고 본다. 2002년 월드컵 특수가 시장 성장의 계기가 돼 2010년 정도에는 자동카메라와 같은 수준으로 보급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한다.

국내 디지털카메라 개발 동향
삼성전자·삼성항공 100만 화소급까지 개발, 시장 관망하며 개발과 수출 마케팅 병행

국내에서 디지털카메라를 개발·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삼성전자(주)와 삼성항공(주)으로 100만 화소급 정도 수준이다. 그 동안 몇몇 군데에서 디지털카메라 제작에 뛰어들

었으나 현재는 다 포기한 상태이다.

36만 화소급 제품까지 생산했던 LG 전자(주)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사업 전략에 따라서 작년에 디지털 카메라와 캠코더 카메라의 사업을 줄였다. 주로 PC카메라, 보안장비 등을 제작하는 한국통신(주)은 35만 화소 제품을 출시하고 개발은 230만 화소 제품까지 성공했으나 올해부터 생산을 중단한 상태이다. 주로 OEM 생산을 해왔으나 중소기업으로서 일제 수입제품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이기지 못한 것이다.

삼성전자(주)

삼성전자(주)에서 지금까지 나온 제품은 SDC-33(35만 화소), SDC-85(85만 화소), SDC007(108만 화소)이다.

이중 SDC007(NEXCA)은 디지털카메라로는 전세계에서 최초로 선보인 폴더형으로, 세계 시장을 목표로 저가대(출하 당시 70만원대)로 출시됐다. 핸드폰처럼 열고 닫을 수 있는 폴더형 제품이고 휴대와 충전이 간편하고, 180도 회전이 가능해 원하는 각도에서 찍을 수 있다.

용산 디지털프라자의 한 판매자는 "넥스카는 모양이 컴팩트하고 예쁜 데다 니콘 수소 배터리를 휴대폰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놀라운 일이다. 광고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기

가격, 얼마나 하나?

디지털카메라는 화소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며, 줌의 유무에 따라서 20~3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9월 현재 시장에서 실제 판매되는 가격은 200만 화소의 경우 줌이 있으면 130만원대(권장소비자가격 200만원 대), 줌이 없으면 80~90만원정도이다. 130만 화소는 줌이 있는 제품이 80~70만원대, 줌이 없는 제품이 60만원 대를 형성하고 있다. 80만 화소는 줌과 액정이 없는 제품의 경우 30만원~5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

디지털카메라를 고를 때 가장 현명한 것은 무조건 높은 화소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 판매상들은 일반인들은 130만에서 150만 사이의 제품도 당분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며, 200만 화소도 줌이 없는(가격 100만원 미만) 제품이 좋다고 권한다. 현재 35만 화소인 저가형은 수요가 거의 없는 편이다.

디지털 카메라 국내 시장 동향

대가 대단했는데, 출하시기가 예정보다 늦어져 200만 화소가 나온 다음이라 반응이 줄어서 안타깝다.'고 말한다.

앞으로 삼성전자(주)는 실용적인 제품을 지향한다. 고성능이면서도 엮가 제품 시장을 타깃으로 한다. 화소수는 130만~200만 사이가 될 것이며 내년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전자(주) 관계자는 "우리가 아니면 누가 국내 디지털 카메라 시장을 사수하겠는가. 당장 이익이 없더라도 국내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자부심과 미래의 시장성을 보고 계속 투자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삼성항공(주)

삼성항공은 1월에 D·G·MAX 350S(35만 화소)를 내놓은 데 이어서, 10월에 Digimax 800K(80만 화소)를 선보였다. Digimax 800K는 사이즈가 적고 가격이 저렴(실제 판매 가격 28만원대)한 실속형으로, 월 1만 5천대 이상을 미국과 유럽 쪽에 수출하고 있다.

또 11월 중에 겨울 방학 시즌을 맞춰서 Digimax 800S(80만 화소)를 출시할 계획이다.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휴대가 간편한 포켓용 디지털카메라로 부가기능을 과감히 줄이고 필수 기능만 장착했다. LCD 패널이 있고, 카드 리더 드라이브나 플로피 디스

크 어댑터 등을 사용하면 별도의 시리얼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고도 컴퓨터로 전송할 수 있다. 80만 화소급으로 액정 모니터를 부착한 업그레이드 기종도 곧 선보일 계획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화소급 디지털 카메라를 내놓을 예정이다. 관계자는 '현재 130만 화소급 3배 줌까지 개발이 됐다.'고 밝힌다. 일단 본격적인 경쟁은 미루고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 디지털카메라 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드는 데 비해서 국내 시장이 작아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기술 개발을 계속하는 동시에 해외 마케팅에 주력해서 수출 길을 확보해 놓겠다는 전략이다. 판매 시장이 확보되면 200만 화소급 정도로 해외에 진출할 예정이며, 국내에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앞으로 개발하는 제품은 일본 제품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기존 디지털 카메라가 찍고 메모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보완해서 필름카메라처럼 짧은 시간에 여러 장을 찍을 수 있도록 하고, 가격도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책정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디지털카메라 수입업체 동향 10여 브랜드 화소수 경쟁하

며 혼전, 성능 중시 고가·저가 보급형으로 양분

올 6월 업체들이 앞다투어 200만 화소급 제품을 들여 오면서 고화소를 내세운 제품과 기능성을 중시하고 가격을 낮춘 제품군이 양분돼 있다.

한국후지필름(주), (주)아남인스트루먼트, 소니인터내셔널코리아(주), 아주포커스(주) 등이 200만 화소급에 치중한다.

(주)아남인스트루먼트-니콘의 디지털카메라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가용은 96년부터 보급형은 97년부터 들어왔다. '제품력으로 승부한다'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보급형 모델은 COOLPIX700(211만 화소), COOLPIX 950(211만 화소), 3배줌인 COOLPIX 950은 렌즈 회전이 가능하고, 사용자 촬영 범위가 넓으며, 바디 감각이 고급 SLR 수준이다. 기능성을 위주로 한 COOLPIX 700은 디지털 2배 줌이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격을 낮췄다. 이 디지털카메라들은 니콘 렌즈를 채용해 해상도와 표현력이 앞선다고 자부한다.

관계자는 '시장 공략을 적극적으로 했지만 브랜드 인지도에 비해 제품 공급이 못 따라가 판매가 대폭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한다. 앞으로 1천 180만원 정도

디지털 카메라 국내 시장 동향

로 12월에 출시할 예정인 전문 가용 D1(274만 화소)을 계기로 영업망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 211만 화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능성을 대폭 살린 신제품으로 일반 사용자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한국후지필름(주)-보급형 중에서도 고급기종 판매가 목표이다. 130만원대의 MX-2900은 매뉴얼 촬영이 가능해서 보급형이면서 스튜디오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작년에 판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이고 있다. DX-10(85만 화소), MX-500 (150만 화소), MX-600Z (150만 화소), MX-700(150만 화소), MX-2700(230만 화소), MX-2900Z (230만 화소)와 함께, 프로용으로 DS-330, DS-560(140만 화소)를 출시했다.

액세서리를 기본으로 해서 편의를 최대한 도모한다. 이미지 메모리카드로 32메가를 기본으로 하고, 고급스러운 가죽 소프트케이스를 포함시키는 등이 그런 예이다. 8월 24일부터 판매한 MX-2900Z를 구입할 경우 무료 디지털 출력권을 배부했다.

소니인터내셔널코리아(주)-1997년도 말에 처음으로 도입한 3.5인치 플로피디스크를 사용한 제품을 내놓으면서 디지

털카메라 시장에 뛰어들었다. 올 상반기부터 전자상가, 지하철 등에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를 전면적으로 내놓으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다.

보급기 중에서도 고급기에 주력하고 있으며, 판매량의 80% 정도는 업무용이다.

MVC-FD91(85만 화소), MVC-FD88(130만 화소)가 출시돼 있다. 10월에 출시된 115만원 가량의 DCS-F55 (211만 화소)을 계기로 판매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마케팅 담당 홍지영 씨는 "DCS-F55는 메모리스터키 4메가며 칼자이크 렌즈를 채용했다. 기존의 200만 화소급에서 가장 잘 나온 것이 3배 광학 줌, 6배 디지털 줌이었던 데 비해서 5배 광학 줌, 10배 디지털 줌을 자랑해 판매 2주만에 재고가 동났을 정도이다."고 말한다.

아주포커스(주)-아주포커스(주)는 98년 4월부터 일본 올림푸스의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하고 있다. '고화질에 승부'를 건다는 판매 전략에 따라 130만 화소급 이상의 제품만 내놓고 있다.

장태용 대리는 "국내에서도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고화질 디지털카메라 시장의 리더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힌다. 특히 '타사 제품에 비해서 가격

이 높고 고급스럽다'는 점을 강조한다.

C-830L(131만 화소), C-900Zoom(131만 화소), C-1400WL(140만 화소), C-21(214만 화소)에 이어서 줌이 달린 200만 화소급 C-2000Z(211만 화소)까지 나와 있다. 11월에 신제품으로 C-2500L을 선보인다. 2/3인치 CCD를 채용했고 SLR카메라의 독특한 조작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코닥(주)과 아그파코리아(주)는 100만 화소급에 집중하며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다.

한국코닥(주)-니콘과 캐논의 바디를 채용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퀄리티를 만족시키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100만 화소급 이상에 집중한다.

다른 업체에 비해서 모델 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고가 프로용과 일반 보급형을 내놓고 있다. 스튜디오에서 주로 사용되는 프로용은 DCS 520(200만 화소), DCS560 (600만 화소), DCS-620(200만 화소)으로 천만원대 이상이다.

보급용은 100만 화소급으로 DC-200Plus(109만 화소), DC210plus(109만 화소), DC240(130만 화소), DCS 265(160만 화소)가 있으며, 200만 화소급은 DC-280(230만 화소) 등이 있고 가격은 대

디지털 카메라 국내 시장 동향

략 60만원에서 150만원에 형성돼 있다.

웹카메라라고 명명한 DC-215(100만 화소)는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60만원대로 출시했으며, 히트상품인 DC-265를 업그레이드한 DC-290(330만 화소)을 11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시장 점유율보다 국내 디지털 시장의 볼륨을 키우는 마케팅에 중점을 둔다. 대리점 중심의 판촉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다가가는 전략으로 전환하며, 이를 위해 저가형 DC-215 출시 이후에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판촉행사를 기획중이다.

아그파코리아(주)-저가의 틈새 시장을 노린 경우로 업체 체 직판을 많이 했다. 전문가용 디지털카메라는 1996년부터, 보급용 디지털카메라는 1997년 하반기부터 선보이기 시작했다.

유통하는 모델은 5가지 정도로 80만 화소부터 192만 화소까지 나와있다. 제품은 ePhoto 780(78만 화소), ePhoto 1680(190만 화소) 등이고 신제품으로 CR-50(214만 화소)를 내놓는다.

관계자는 "독일 본사나 아그파코리아나 똑같은 칼라를 조각만 많이 낸다고 해서 선명하다고 보지 않는다. 150만 화소가 넘어가면 출력에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200만 화소급

에서 경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올해는 중저가대로 갈 예정이며 저가대 제품인 ePhoto 780은 하반기에 가격을 38만원까지 내릴 예정이다. 월 1000대 이상 판매되는 제품이다. 앞으로 로드맵쇼를 통해서 소비자들에 다가설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에는 300만 화소급의 제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주)신도시시스템-96년부터 리코 디지털카메라를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RDC SPECIAL(132만 화소)과 RDC 5000(230만 화소) 두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11월에 RDC-5000에서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킨 RDC5300(230만 화소)를 출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주력 아이템이다.

주로 기업체나 관공서에 특판형태로 판매하고 있으며, 업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솔루션 영업을 주로 했다. 이한상 계장은 "작년에 RDC 300Z, II 저가 모델이 주정차 관리용으로 서울 지역 구청의 90%는 들어갔을 것이다. 현재는 화소수를 올려서 납품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동안 관공서 판매를 통해서 생소한 브랜드 네임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에 비중을 실을 예정이다.

매뉴얼과 소프트웨어를 한글로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휴먼테크-작년 6월부터 산요 디지털카메라를 판매하고 있다.

김영만 사장은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소니도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지만, 산요와 같은 저렴한 가격대에 동영상 촬영이 되는 제품은 없다. 또 순간포착에 강해 1/10,000까지 가능하다."고 소개한다.

현재 나와 있는 모델은 VPC-X350(85만 화소)와 VPC-Z400(131만 화소)의 두 가지이다. 65만원대의 VPC-X350은 동영상을 1분간 촬영할 수 있으며 판매시 액세서리가 포함된다. 85만원대인 VPC-Z400은 200만 화소까지 출력이 가능하다.

11월 경에 3가지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VPC-Z380(192만 화소)은 정지화상만 촬영하며, 55만원대의 가격을 무기로 저가 시장을 공략한다. VPC-X360(131만 화소)은 동영상을 2분까지 촬영할 수 있으며, 가격은 60만원대이다. VPC-SX 500(220만 화소) 역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며 배터리와 충전기까지 합해서 95만원대에 판매한다는 전략이다.

5, 6월부터 판매량이 늘어

디지털 카메라 국내 시장 동향

서 월 100대를 넘어서고 있다. 지 9~10차례 광고를 하고, 서 정이다.
 신모델 판매를 계기로 12월까 올에 대리점 12개를 확보할 예

취재:신승미 기자

일본 디지털 카메라 판매 랭킹(Impress Best 10)

일본 시장은 올해 들어서 디지털카메라 판매가 급격히 늘고 있어 4월부터 3달 동안 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서 32%나 증가했다고 한다.(일본전자공업진흥회 집계. 일본 주요 20개사의 디지털카메라

순위	9월 1일 기준		10월 1일 기준	
1	Fujifilm MX-1500	(62,800엔)	Olympus C-2000Z	(113,000엔)
2	Olympus C-2000Z	(113,000엔)	Fujifilm MX-1500	(62,800엔)
3	Olympus C-900Z	(89,800엔)	Olympus C-900Z	(89,800엔)
4	Sony DSC-F55	(115,000엔)	Sanyo DSC-SX150	(78,000엔)
5	Fujifilm MX-2700	(94,800엔)	Sony DSC-F55	(115,000엔)
6	Sanyo DSC-SX150	(78,000엔)	Fujifilm MX-1700Z	(89,800엔)
7	Fujifilm MX-2900Z	(99,800엔)	Olympus C-2500L	(148,000엔)
8	EPSON CP-800	(99,800엔)	Toshiba PDR-M4	(89,800엔)
9	Nikon Coolpix 950	(125,000엔)	Fujifilm MX-2700	(94,800엔)
10	Olympus C-21	(89,000엔)	Nikon Coolpix950	(125,000엔)

(제공 : 디지털프라자)

출하 대수 및 금액 기준)
 올 초에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제품이 등장했고, PC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홈페이지, 연하장, 전자우편을 통해서 영상을 전하는 이용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화질과 가격이 적절한 보급형 제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

각사별 디지털카메라 주력제품 비교

구분	삼성전자(주) SDC-007 	삼성항공(주) Digimax 800K 	아남인스트루먼트(주) D-1 	한국후지필름(주) MX-2900Z 
화소수	108만 화소	80만 화소	274만 화소	230만 화소
출력화소수	1152x864	1024x768	2000x1312	1800x1200
저장포맷/ 매체	표준 JPEG 파일 Smart Media 3.3V	JPEG(Exif 2.0) /Compact Flash Mamory	JPEG, TIFF-YCbcr, RGB-TIFF	JPEG,TIFF-YC/ Smart Media 3.3V
렌즈	F2.8 f:6.6mm	f:6.6mm F2.8	렌즈 교환식	f:7.4~22mm F:4.0/8.0
촬영매수	Smart Media 4MB (SQ:20매, HQ:10매)	C/F 2MB(N : 15매)	C/F 64MB (12bit Raw:12매, F:48매)	Smart Media 8MB (H:1매, F:8매, N:17매)
파인더	광학실상식뷰파인더	광학식뷰파인더	아이 레벨식 펜타 프리즘	광학실상식 뷰파인더
액정모니터	1.8인치 TFT	-	2인치 저온 폴리실리콘 TFT	2인치 저온 폴리실리콘 TFT
인터페이스	RS-232C, Video	RS-232C	IEEE 1394, Video	RS-232C, RS-422, Video
전원	전용 AC전원, 전용 리튬 배터리	2xAA알카라인, 전용AC전원	충전용 배터리, 전용 AC 전원	충전용 배터리, 전용 AC전원,
중량 (전자 제외)	약 206g	190g	1100g	약 345g
권장가	998,000원	399,000원	약 11,800,000 원(미정)	1,650,000원

특집

디지털 카메라 국내 시장 동향

구 분	소니인터내셔널코리아 (주) F505 	(주)신도시스템 리코 RDC-5000 	한국코닥(주) DC-290 	아그파코리아(주) CL50 
화소수	211만 화소	230만 화소	330만 화소	214만 화소
출력화소수	1600x1200	1792x1200	1792X1200픽셀	1600x1200, 640x480
저장포맷/ 매 체	JPEG MPEG동영상 메모리стик	JPEG, TIFF/ Smart Media 3.3V, 내장 8MB	JPEG, TIFF/컴팩트 플래시	JPEG/Smart Media 3.3V
렌즈	7.1~35.5(초점길이)	f:8~18mm, F:2.8/3.2	f:4.7~16 F:3.0~15.3	f:7.4mm F3.8/8
촬영매수	4MB기준 63매	8MB(F:9매, N:19매, E:38매)	20MB 28장~220장	Smart Media 8MB(F:8매, N:16매)
파인더	-	광학실상식 뷰파인더	광학식뷰파인더	광학식뷰파인더
액정모니터	2인치	1.8인치 TFT	2.0 인치 TFT 컬러 LCD	1.8 인치 TFT
인터페이스	표준 시리얼 케이블, Video	RS-232C, Video	USB 시리얼, 리더기(옵션)	RS-232C, Video
전원	충전용 배터리 전용 AC 아댑터	4xAA 알카라인, 전용 AC 전원	전용 AC전원, 전용 리튬 배터리	4xAA알카라인, 전용AC전원
중량 (전지 제외)	120g	315g	약 525g	240g
권장가	1,270,000원	약 1,650,000	미정	1,980,000원

구 분	아주포커스(주) 올림푸스 C-2500L 	휴먼테크 산요VPC-SX500 
화소수	250만 화소	150만 화소
출력화소수	2000x1312	1360x1024
저장포맷/ 매 체	JPEG, TIFF/Smart Media, 컴팩트 플래시	JPEG, TIFF, MOV/ Compact Flash Mamory
렌즈	f:9.2~28mm, F:2.8~3.9	F 2.4/8 f:7mm
촬영매수		C/F 8MB(H:1매, F:1.9 매, N:30매)
파인더	TTL SLR 카메라	광학실상식 뷰파인더
액정모니터	1.8 인치 TFT	1.8 인치 저온 폴리실리콘 TFT
인터페이스	DC, RS232C, Video	RS-232C, Video
전원	단 3니켈 수소 전지, 니 켈 또는 알카리 전지 4 개, AC 전원	2xAA 니켈수소 전지, 전용 AC전원,
중량 (전지 제외)	490g	약 220g
권장가	미정	1,570,000원

정 기 구 독 안 내

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광학세계' 지를 정기구독하고자 하는 분은 1년간 책자 우송료 1만2천원을 지불하시면(국민은행 084-01-0156-856, 예금주: 한국광학기기협회)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정기구독 기간중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본 협회(전화: (02)581-2321~2)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